

겨울을 밀어낸 하모니 따뜻한 봄을 노래하다

●22일 광주시립합창단 신춘음악회

봄의 기운이 싹트는 3월, 광주시립합창단이 신춘음악회 '봄, 합창으로 노래하다'로 찾아온다. 이번 연주회는 광주시립합창단 이준 부지휘자가 지휘를 맡고 테너 강동명과 월드뮤직앙상블이 협연, 유쾌하고 흥겨운 안무가 더해져 눈과 귀가 즐거운 감각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테너 강동명(왼쪽)과 월드뮤직앙상블



테너 강동명, 월드뮤직앙상블 협연 가곡·뮤지컬 등...희망 메시지 선사

테너 강동명은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과 밀라노 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마리아델마노 국제 콩쿨, 비오티 국제 콩쿨, 마르세유 오페라 국제 콩쿨 등에서 입상했다. 현재 전문연주자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 중이다. 월드뮤직앙상블은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

는 월드뮤직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단체다. 차랑고, 팬플룻, 케나 등 세계 악기 앙상블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쳐오고 있다. 먼저 이날 공연의 첫 무대는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음악감독으로 알려진 아리엘 라미네즈의 작품 '미사 크리올라'다. 아르헨티나 토착 선율과 리듬을 접목해 이전 미사곡들과는 확연히 다른 곡이다. 군사독재로 혼란과 고난의 시기를 겪던 아르헨티나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은 이 곡은 민주화 항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광주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테너 강동명과 월드뮤

직앙상블, 광주시립합창단이 함께 해 깊은 음악적의미를 전한다.

이어 여성합창 무대가 준비돼 있다. 봄의 풍경과 그리움을 묘사한 옛 시에 서정적인 선율을 덧붙인 작곡가 조혜영의 '바람은 남풍', 흑흑한 겨울을 지난 봄처럼 현대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김준범의 '제비꽃'으로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다음으로 조동화 시에 윤학준이 곡을 붙인 '나 하나 꽃 피어'를 들려준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와 굳건한 희망을 노래한 곡이다. 청산을 통해 세상의 번뇌와 시름에 대한 고통을 승화시킨 상징적인 우리 가곡 '청산에 살리라',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을 표현한 '봄이 오면' 혼성합창을 차례로 들려준다.

개화기 지어진 함경도민요 중 하나로, 현대 문명에 대한 반발과 시골 처녀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한다는 내용의 '신고산 타령'과 신선한 가사 말과 소재로 가요계에 새바람을 몰고 왔던 '흥보가 기가 막혀'를 남성합창으로 선사한다.

마지막 무대는 '바람의 노래', 대한민국 흥성그룹 거북이의 대표곡 '비행기', 뮤지컬 '갯츠'의 '메모리', 뮤지컬 '레베카' 대표 넘버 '레베카 ACT 2' 4곡을 혼성합창으로 마무리한다.

광주예술의전당 관계자는 "따뜻한 봄을 맞이해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광주시립합창단 공연을 통해 가족과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시립합창단

목포시립도서관 '길에서 주워 온 시'展

전시갤러리서 미후지 작가 작품 40여점 전시

목포시립도서관은 6일 "전시갤러리에서 오는 30일까지 미후지 개인전 '길에서 주워 온 시' 작품 40여점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작가의 필명인 '미후지'는 껍데기를 제거하지 않은 돼지고기 뒷다리 살을 일컫는 말로, 싸구려 취급을 받지만 불고기, 제육, 탕수육 등 우리가 많이 섭취하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고기이기도 하다.

작가는 알게 모르게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미후지같은 시를 쓰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 주제인 '길에서 주워 온 시'는 길거리에 버려지고 방치된 것들을 촬영 후 시로 쓴 작품들을 선보인다.

더는 쓸모 없어진 것들을 보고 작가가 느꼈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목포시립도서관 관계자는 "관람을 통해 아주 하찮은 것도 가볍게 지나치지 않는 미후지 작가의 시선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푸른연극마을 시즌제 배우 모집

창단 30주년을 맞은 푸른연극마을이 2024년을 함께 할 시즌제 배우를 모집한다.

시즌제 배우는 푸른연극마을 제작 공연에 출연하며 연출 및 스태프, 동료배우들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관객을 만나게 된다.

활동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올해 푸른연극마을 보성공연예술촌 제작공연 및 주관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다.

응시 자격은 프로무대 경력 3년 이상 및 공연예술장르 3개 작품 이상 출연경력을 보유한 자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1차 면접은 20일, 최종 합격 발표는 28일이다. /최명진 기자

장희구 박사 (542)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悟道頌(오도송) / 효봉선사

海低燕巢鹿抱卵 火中蛛室魚煎茶(해저연소늪포란 화중주실어전다)
此家消息誰能識 白雲西飛月東走(차가소식수능식 백운서비월동주)
바다 밑의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달아내
소식을 알 수 있으랴 동쪽으로 달이 가네.

타는 불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달아내



효봉선사 오도송은 명문이지만, 열반을 직전에 읊었던 열반송(曉峰禪師 涅槃頌)은 은은한 산사 뒤뜰을 맴돌았다. 오설일체법 도시조변무(吾說一切法 都是早駢拇) / 약문금일사 월인어천강(若問今日事 月印於千江)을 되뇌었다. '내가 말한 모든 법, 모두 군더더기일 뿐 // 오늘 일을 묻는 것인가, 달이 천강에 비치나니' 이 집안의 소식을 그 누라서 능히 알 수 있으랴 / 흰구름 서쪽으로 날고, 달은 동쪽으로 달린다면서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타는 불속 거미집에서 고기가 차 달아내' (悟道頌)로 제목을 붙여 본 칠언절구다.

작가는 효봉선사(曉峰禪師1888-1966)로 현대의 고승이다. 일명 학불(學訥)로 현대의 고승으로 정혜쌍수(定慧雙修)에 대한 구도관을 확립했다. 통합종단 초대 종정을 지냈으며, 평소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제자들을 엄하게 가르쳐 문하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됐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바다 밑의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 타는 불속 거미집에는 고기가 차를 달아내 // 이 집안의 소식을 그 누라서 능히 알 수 있으랴 / 흰 구름 서쪽으로 날고, 달은 동쪽으로 달린다'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悟道頌·사슴이 알을 품는 소식'으로 번역된다. 일제 치하 평양의 판사출신 승려 효봉의 오도송이다. 시어가 매우 상징적이다. 효봉이 오도를 하고 이 계승을 지은 시점은 서구사회에서는 아방가르드가 유행했다. 그래서 지식인이었던 효봉이 서구의 모더니즘을 모방한 것일까, 아니겠나. 엄격하게 말하면 선사들은 이미 천 년 전부터 문화의 최첨단에 서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언어는 초현실적이었으며 극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시인은 이러한 현대적인 사상 때문에 늘 개방돼 있었을 불교의 송을 세계화와 접목하려는 은근한 태도를 엿보인 시상이리라. 바다 밑의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속 거미집에는 고기가 차를 달아내다고 했다. 고기가 차를 달아내다는 표현은 극치의 비유법이었다.

화자는 바다 밑의 제비집안의 소식을 그 누라서 능히 알 수가 있으랴, 흰 구름은 서쪽으로 날고 달은 동쪽으로 달리고 있다고 했다. 비유법 덩치로 치장해 놓은 이 시상의 맛이 자르르하게 들리는 듯하여 긴장감을 더한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사)한국현문교육연구원 이사장

*한자와 어구
海低: 바다 밑. 燕巢: 제비집. 鹿: 사슴. 抱卵: 알을 품다. 火中: 타는 불속. 蛛室: 거미집. 魚煎茶: 고기가 차를 달아내. // 此家: 이 집안. 消息: (궁금한) 소식. 誰能識: 누가 능히 알겠는가. 白雲: 흰 구름. 西飛: 서쪽으로 날다. 月: 달. 東走: 동쪽으로 달린다.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